



전국의 건각들이 올해로 44회를 맞는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대회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3회 대회 때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선을 나서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제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15일까지 신청 접수

남도의 봄을 달린다

매년 남도의 봄을 열어 온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제식민통치에 항거해 우리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드높인 3·1절을 기념하기 위한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는 올해로 44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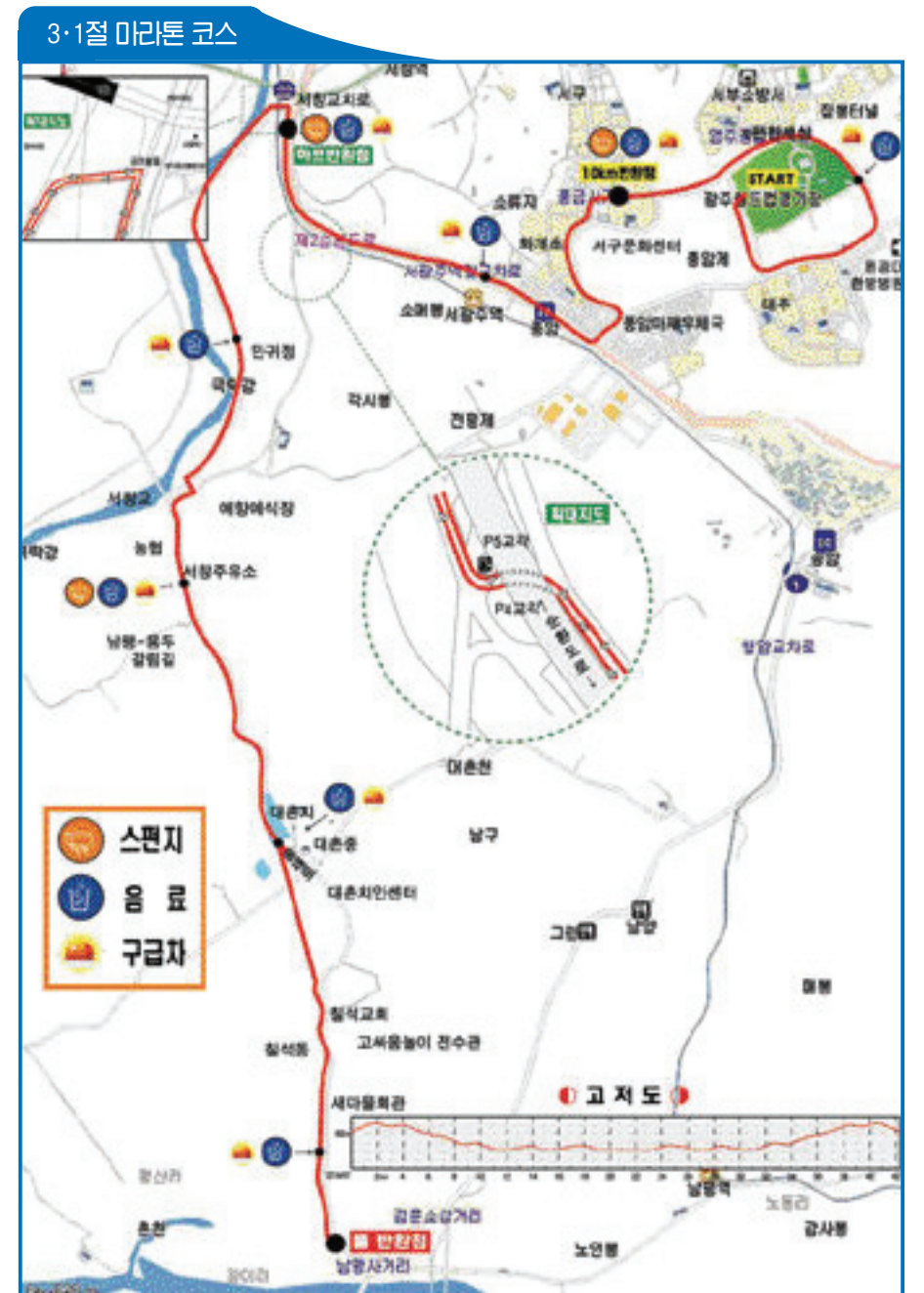
시·도민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마라토너들의 개인과 단체 참가신청이 줄을 잇는 등 대회 열기가 뜨겁다. 열정적인 마라토너들은 광일마라톤 홈페이지(<http://marathon.kwangju.co.kr>)와 전화 등을 통해 참가방법과 코스를 문의하면서 새 봄의 질주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풀·하프·10km·5km

단체팀 참가비 할인

전부문 30위까지 시상

참가자에 기념품 제공



▲코스 및 대회 운영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코스는 2002 한일월드컵 4강의 영광을 담고 있는 광주월드컵 경기장을 출발점으로 해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등 4개 코스로 나누어져 있다.

풀코스는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해 승마장-마재중흥아파트1차(10km반환점)-서구문화센터-제2순환도로 옆길-서창교차로(하프반환점)-극락강 특길-서창과출소-대촌지-대촌사거리-고싸움놀이 전수관 입구-남평교(풀 반환점)까지 이어지며, 이후 동일 주행선으로 끝인하게 된다.

하프와 10km코스는 풀코스와 같은 코스로 주행-반환점까지 진행-동일 주행선으로 끝인한다. 5km는 월드컵 경기장-원광대병원사거리-승마장-짚뿔터널 입구-월드컵 경기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 신체건강한 이들은 모두 대회에 참가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생은 5km, 중학생은 10km까지만 참가할 수 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등록선수인 시상은 제외된다.

10km이상 참가자는 기록 측정용 칩을 통해 자신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시상 순위는 건타임으로 결정된다. 개인기록은 대회 종료 직후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풍성한 시상품도 준비된다. 마니아부를 제외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완주를 할 경우 완주메달이 주어진다. 10km이상 완주자는 기록증도 받아볼 수 있다. 기념품, 지급품(배변, 칩)과 함께 미리 배송했던 대회팸플릿은 예년과 달리 대회가 종료된 후 개인기록과 대회기록 등을 수록하여 제작, 배송할 예정이다. 20인 이상 단체참가팀은 운동장내 플래카드가 게시되며, 단체텐트 설치로 대체할 수 있다.

▲시상

개인시상은 전부문 1~30위까지 이뤄지며 각 부문 남·여 1~3위에게는 상장, 트로피와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각 부문 4~30위에게는 상장과 부상품이 수여된다.

풀코스 남·여 1~3위에게는 각각 50만원·40만원·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하프코스 상금은 남·여 1~3위 각각 40만원·30만원·20만원이다.

10km 남·여 1~3위는 각각 30만원·20만원·15만원, 5km 남·여 1~3위는 각각 20만원·15만원·1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완주자를 대상으로 최고령 참가자상(10km이상 각 부문별 남·여 각 1명씩)과 원양부부상 등 특별상도 마련된다.

원양부부상에 도전할 참가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증빙 서류를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포토제니상과 행운상(대회 44회를 기념하여 참가자 중 사전 추첨을 통해 44명 시상)도 행운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다.

▲참가비와 신청방법

대회 참가비는 풀·하프·10km는 3만원이며, 5km는 1만원, 마니아부는 1만 5천원이다. 단체 참가의 경우 20인 이상은 10%, 50인 이상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부문 참가 인원제한은 없으며 참가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광일마라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062-222-0195)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대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참가비는 실시간 카드 결제로 결제할 수 있고,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다. 입금계좌는 ▲농협 617-17-002371 ▲광주는행 001-107-437903이며 예금주는 광주일보사다.

방문 접수는 광주시 동구 남평로 2가 20-2번지 무등빌딩 16층 광주일보사 문화홍보국에서 받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주일보 문화홍보국(062-220-0541)으로 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제 육상 골든리그 내년부터 12개로 확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내년부터 골든리그를 현재 6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유럽에서만 열리는 대회 개최지도 전 세계로 넓혀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은 7일 IAAF가 각 대회를 후원해 줄 기업체와 접촉 중이며 골든리그 확대안을 3월21~2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골든리그는 IAAF가 육상 47개 종목 중 팬들의 관심이 높은 남녀 5개 종목만 따로 여는 대회다. 남자 100m, 400m, 3,000~5,000m, 110m 허들, 창던지기와 여자 100m, 400m, 100m 허들,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등이며 6월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해 노르웨이 오슬로,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위스 취리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여섯 차례 열린다. 여섯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선수는 상금 100만달러를 받는다.

IAAF는 육상의 저변을 넓히고 인기를 더 높이고자 대회도 늘리고 지역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골든리그가 12개로 늘어나면 대회를 개최할 지역으로 영국 런던, 스위스 로잔, 스웨덴 스톡홀름 등 유럽 도시와 미국 오리건주 유진, 카타르 도하, 중국 베이징 또는 상하이도 대륙별 거점 도시로 꼽힌다. /연합뉴스